

연구논문

한국 행정학의 조직연구 경향 실증 분석

이 재 은*

- I. 서론
- II. 연구경향의 분석기준
- III. 조직이론 연구경향 분석
- IV. 결론

< 요약 >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조직이론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조직이론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까지 규범지향적이고 이론지향적 일변도의 연구경향이 1990년대 이후 들어와서 조직이론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처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이론의 검증이나 정립, 이론의 적용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정책대안제시 목적을 지닌 연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연구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서술적 접근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술적 접근과 계량적 접근이 각각 62.3%, 37.7%의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이들 접근방법은 연구의 이론적 주제나 연구초점, 연구의 분석수준, 연구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인간관계론적 접근,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 개인수준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미시적 관점의 연구의 경우에는 계량적 접근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조직이론, 조직연구, 연구경향, 경향분석]

I. 서론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행정학이 소개된 시기를 정인홍의 저서 「행정학」(서울: 제일문화사, 1955)이 출판된 때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행정학의 체계적 연구가 시도된 시기는 국내의 학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현재 한국행정학회의 전신인 한국행정연구회를 조직한 1956년으로 본다(안병만, 1986: 359). 한국행정학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jeunlee@chungbuk.ac.kr).

회가 발간하는 한국행정학보는 1967년 제1호를 시작으로 현재 36권 제1호가 발행되었다. 한국의 행정학 발달과정에서 한국행정학보는 각 대학의 논문집과는 달리 국내의 모든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높은 학문적 대표성을 유지해 온 한편, 행정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를 주도해 왔다.

한국의 행정학은 그 동안 연구의 다양화와 연구 영역의 확장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행정학의 핵심적이고 이론적인 분과인 조직이론은 조직현상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학의 대부분 이론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조직을 관심의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합과학적 연구활동의 집합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이론의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체계화 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최초의 조직이론분야 교과서인 조석준교수의 「조직관리론」(서울: 법문사, 1963)과 김운태교수의 「조직관리론」(서울: 박영사, 1966)이 발행된 때이다(이양수, 1989: 138-151).

이후 많은 조직론 교과서의 저자들은 조직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조직이론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방대하여, 하나의 통일체로 엮어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조직이론 연구자들은 연구의 범위와 강조점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통희, 1996: 190-192).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조직이론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조직이론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분석대상 논문집의 범위, 분석대상 논문의 범위, 그리고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분석대상 논문집의 범위는 한국행정학보로 한정한다. 둘째, 분석대상 논문의 범위는 「한국행정학보」의 논문 중에서 조직이론 논문으로 한정한다.¹⁾ 1967년에서 1977년까지는 특집이나 서평을 제외한 논문만을, 1978년에서 1991년까지는 세미나(발표)논문, 월례발표논문, 연말총회발표논문, 지방학술발표논문, 서평을 제외한 연구논문과 기고논문만을, 1992년에서 2002년까지는 논문을 위주로 하여 정책논단과 기획논문에 포함된 조

1) 조직이론 논문의 선정기준은 다소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연구의 제목에 '조직'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의 내용이 적합한 논문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하였다. 다만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직이론 연구논문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²⁾ 셋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행정학보에 조직이론 연구 논문이 처음 게재된 시기 1967년부터 2002년까지로 설정한다.

II. 연구경향의 분석기준

1. 기존 행정학 연구경향 분석논문에 관한 검토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행정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안병만(1986), 김인철(1992), 이양수(1992), 이영균(1994), 김병섭(1995), 김행범(1995), 하태권(1995), 권경득(1996), 박통희(1996), 유민봉(1996), 이승중(1996), 김태일·서주현(1998), 노화준·황혜신(2001), 목진휴·박순애(2002), 이병렬·박기관(2002)이 대표적이다(<표 1> 참조). 이들 행정학 관련 연구경향 분석 논문 중에서 조직이론분야에 대해 분석한 이양수(1992), 김병섭(1995), 박통희(1996)를 제외한 관련 분야의 논의를 먼저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학 관련 연구경향 분석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안병만(1986), 이영균(1994), 권경득(1996)은 행정학 분야 전반에 걸쳐 분석을 하고 있다. 안병만(1986)은 1967년부터 1985년말까지 발간된 22권의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29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의 전체적인 특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행정학의 내용적 변화, 행정학보를 통해 행정학자들이 행정학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숙도를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영균(1994)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행정학 분야의 박사학위논문 339편을 대상으로 행정학 연구영역의 변천과정, 즉 접근방법과 전공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1974년부터 1994년 사이의 행정학분야 연구 영역중 정부 및 조직행태의 분야는 1974-80년 사이에 4편, 1981-85년 사이에 20편, 1986-90년 사이에 27편, 1991-94년 사이에 26편으로 지속적으로 행정학 분야의 주된 연구영역을 차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균, 1994: 1474-1479). 권경득(1996)은 1967년부터 1995

2) 김광웅 외(1992), 이시경(1993)은 정책논단, 김현구(1993)는 기획논문 부문에 게재되었다.

년 사이에 한국행정학회에 게재된 기고논문과 연구논문 541편을 대상으로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춰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기간동안 조직론 분야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조직론 관련 논문 67편 중에서 조직이론에 관한 논문이 19편(28.4%), 조직행태 분야는 16편(23.9%), 관료제 분야는 15편(22.4%), 조직변화 분야는 12편(17.9%), 의사전달 분야는 2편(3.0%), 리더십 분야는 3편(4.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인간관계 분야의 논문은 한편도 게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권경득, 1996: 144).

김인철(1992), 김행범(1995), 노화준·황혜신(2001), 목진휴·박순애(2002)는 행정학관련 연구경향 분석에 있어서 정책학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중에서 김인철(1992)과 목진휴·박순애(2002)는 정책학 전반에 걸친 연구경향을, 김행범(1995)은 정책집행 분야를, 노화준·황혜신(2001)은 정책평가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김인철(1992)은 1967년부터 1991년 사이의 한국행정학회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정책학 분야의 논문 210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배경과 협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자의 직책중 교수는 188명(89.5%), 연구원은 15명(7.1%), 관료 및 정치가는 3명(1.4%), 기타 4명(1.9%)로 나타났으며, 단독 연구가 197편(93.8%), 2인이상 공동연구는 13편(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계량적 접근에 의해 연구된 논문이 1967-76년에 6편(17.1%), 1977-86년에 30편(37.6%), 1988-91년에는 43편(58.1%)로 나타나 방법론적 편향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진휴·박순애(2002)는 한국정책학회보의 창간호에서 2001년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문당 연구자 수는 단독저자가 211편(76.2%)으로 나타났고, 2인이상 공동연구는 66편(23.8%)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243편(87.7%), 국책연구소가 32편(11.5%), 민간연구소와 정부가 각각 1편씩 있었다.³⁾ 김행범(1995)은 실증적 집행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주요대학의 박사학위논문 등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함의는 한국의 실증연구들은 집행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이의 성공·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

3)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중 게재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반 영역중에서 행정 영역에 관한 논문은 78편(28.2%)으로 나타났다(목진휴·박순애, 2002: 327).

고 있다(김행범, 1995: 1442). 노화준·황혜신(2002)은 1990년대의 정책평가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 150편을 평가이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실증적인 평가연구 사례, 평가시스템 및 활용에 관한 연구의 세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 의미있는 연구경향으로는 분석대상논문의 기간별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연구의 초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순수 평가이론과 관련된 규범적·이론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26편인데 반하여, 이론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거나 평가이론을 구체화하여 현실세계에서 작동시키는 문제해결적·처방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는 114편으로 나타났다⁴⁾(노화준·황혜신, 2002: 91).

하태권(1995), 유민봉(1996)은 인사행정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하태권(1995)은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에 발표된 논문과 국내외 박사학위논문 50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사행정 제도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이 통계분석이나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석대상 논문중에서 26편(52%)은 통계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16편(32%)은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42편(84%)이 계량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하태권, 1995: 1464). 유민봉(1996)은 한국 인사행정교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내용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출판된 인사행정 분야의 교재 8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경향 분석 결과에서 주의할 만한 사항은 인사행정 교재를 개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의 보완이 새로운 구성체계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편성에 장이나 절이 추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재의 분량은 증가되는 반면, 체계성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유민봉, 1996: 190).

지방행정(자치)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것으로는 이승중(1996), 이병렬·박기관(2002)이 대표적이다. 이승중(1996)은 1990년대에 출간된 교재를 대상으로 현행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교과서들이 지니는 내용은 상호 체계적인 관련성이 약한채로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4) 2000년의 경우에도 규범적·이론적 측면의 논문은 3편에 불과한 반면, 문제해결적·처방적 논문은 7편으로 나타나 1990년대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경향이 강하여 유민봉(1996)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 연관성이 약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서로는 전체를 조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배양하기 어려우며 단지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중, 1996: 208). 이병렬·박기관(2002)은 한국 지방자치학의 연구경향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1989년에서 2001년 사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342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소속과 논문편수는 대학교수 259편(75.7%), 연구원 31편(9.1%), 시간강사 22편(6.4%), 공동연구 21편(6.2%) 기타 9편(2.6%)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연구자 수는 단독 연구 262편(76.6%), 2인공동 53편(15.5%), 3인공동 19편(5.6%), 4인이상 8편(2.3%)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의 경향 분포는 서술적 접근이 204편(59.6%), 계량적 접근이 138편(40.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이론적인 연구경향을 보이는 논문은 150편(43.9%), 문제해결적 내지 처방적인 연구경향을 보이는 논문은 192편(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태일·서주현(1998)은 1991년에서 1997년 사이에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 101편의 논문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동안 전체논문에 대한 실증연구와 설문조사 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논문은 471편이고 이 가운데 계량적 방법에 의한 실증연구는 196편(41.6%),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로 분류된 것은 101편(21.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이양수(1992), 김병섭(1995), 박통희(1996)가 대표적이다. 이양수(1992)는 조직행태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밝히고 행정학 교과목으로서 바람직한 조직행태론 교과내용의 모형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출판된 조직행태론 관련 교과서 52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조직행태에 관한 일반적 분석수준인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행태적 변수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조사대상 52개 교과서에서 공히 취급되는 행태변수는 없으며 가장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변수는 동기(92%)이고 다음으로 리더십(86.5%), 집단 행동(80.8%), 의사전달(78.8%)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과반수 이상

의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로는 조직변화와 발전(67.3%), 권력(65.4%), 갈등(61.5%), 의사결정(53.8%), 조직구조(51.9%)가 있다(이양수, 1992: 163-164). 시기별로는 조직행태론 연구의 초기인 1970-75년에 출간된 교과서는 동기(85.7%), 리더십(71.4%), 의사전달(57.1%), 의사결정(57.1%) 및 집단역학(57.1%)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976-80년 교과서는 태도(40.0%), 지각(33.3%), 학습(46.7%), 직무만족(26.7%), 그리고 직무설계(20.0%)를 새롭게 추가시키고 있다. 1981-85년의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태변수로는 유일하게 의사전달(100%)이 있고, 동기(94.7%), 리더십(89.5%)도 다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6-90년의 교과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기, 집단역학, 리더십 및 조직변화와 조직발전을 주요한 행태변수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개인, 집단, 조직체계 차원의 행태에 관련된 변수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골고루 논의되고 있다(이양수, 1992: 168-170).

김병섭(1995)은 조직론 분야의 실증적 연구들을 구조론, 인간관계론, 정치권력적 접근방법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기 위해 1967년부터 1995년 사이의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등에 게재된 논문과 국내 주요대학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구조론적 접근방법에서 다양한 매트릭스 조직형태나 신제도론, 상징의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둘째, 인간관계론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연구가 성장형 인간관을 연구결과물로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과 실무는 변화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치적 접근법에서는 조직경제학적 시각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동희(1996)는 1991-96년 사이에 행정학과 교수가 집필한 조직론교과서 15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적실성있는 조직론 교육을 위하여 조직론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기존의 교과서가 이러한 요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 교과서의 명칭은 크게 조직이론, 조직행태론, 조직관리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직이론’ 명칭의 책은 조직이론 일반이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조직행태론’은 조직내의 개인행동과 관련된 심리학적 내용을 중점적으

8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표 1> 행정학 연구경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구분	저자	연구 분야	분석 초점	분석 대상 논문(저서)	분석 대상 기간	비고
1	안병만 (1986)	행정학	한국행정학의 전체적인 특징, 내용적 변화, 학문적 성숙도	한국행정학보	1967-1985	291편
2	김인철 (1992)	정책학	연구성향과 특징, 이론적 정향과 방법론적 성격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치학회보	1967-1991	210편
3	이양수 (1992)	조직행태론	개인, 집단, 조직 차원의 행태적 변수 분석과 각 시기별 주제의 비교·조사	조직행태 관련 교과서	1970-1990	52권
4	이영균 (1994)	행정학	행정학 연구영역의 변천과정(접근방법, 전공영역 등)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1974-1994	339편
5	김병섭 (1995)	한국행정조직에 대한 실증연구	기존의 경험적 조직연구들을 구조론, 인간관계론, 정치권력적 접근방법의 범주로 구분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주요대학 논문집,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1967-1995	-
6	김행범 (1995)	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연구	실증적 집행연구의 결과대비 분석	주요대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1984-1995	-
7	하태권 (1995)	한국 인사행정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경향, 연구결과, 향후과제 도출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지방자치연구, 주요대학 논문집, 국내외 박사학위 논문	1965-1995	50편
8	권경득 (1996)	행정학	연구영역, 연구방법	한국행정학보	1967-1995	541편
9	박동희 (1996)	조직론	조직론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한계 극복방안	행정학과 교수가 집필한 조직론 교과서	1991-1996	15권
10	유민봉 (1996)	인사행정론	인사행정 교재의 일반적 특성과 바람직한 내용구성의 방향제시	인사행정론 교과서	1990-1996	8권
11	이승종 (1996)	지방행정론	현행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제시	지방행정론 교과서	1991-1996	16권
12	김태일· 서주현 (1998)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방법론	설문조사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설문조사를 이용한 논문	1991-1997	101편
13	노화준· 황혜신 (2001)	정책평가론	평가이론 및 방법, 실증적 평가연구 사례, 평가시스템 및 활용 분석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평가 관련 박사학위논문	1990-2000	150편
14	목진휴· 박순애 (2002)	정책학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경향 파악	한국정책학회보	1992-2001	277편
15	이병렬· 박기관 (2002)	지방자치론	한국 지방자치 연구의 경향과 방향성 파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89-2001	342편

로 소개하고 있으며, ‘조직관리론’ 명칭의 책은 조직이론을 응용하는 처방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기존 교과서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1980년대까지는 조직이론의 연구분야 또는 주제에 따른 내용의 분류에 입각한 체계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 이론적 관점(접근법, 학파), 분석수준이 주요 분류기준으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적 관점에서는 구조론적 접근, 인간관계론적 접근, 정치권력적 접근으로 체계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김병섭 외, 1994), 고전적 조직이론, 조직심리학, 신고전학과, 조직사회학, 신제도론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경우도 있다(조석준, 1996). 분석수준에 의한 분류로는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으로 이론을 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내용의 이론을 주요 변수로 범주화한 경우가 있다.

2. 조직론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한국 조직이론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가능성, 분석의 적실성, 분석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의 설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경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실증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위주로 검토하였다.⁵⁾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병만(1986)은 연구분야의 변화, 연구방법론의 변화, 이론적 성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5년단위 시기를 이용하고 있고, 김인철(1992)에서도 주된 분류기준으로 5년 단위의 시기를 이용하고 있다. 하태권(1995)은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 논문의 발표시기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발표시기는 10년 단위로, 연구방법은 통계분석, 설문조사, 사례분석, 병행의 네 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영균(1994)은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분류기준으로 수여년도, 학위수여대학교, 전공분야, 접근방법⁶⁾ 등의 항목으

5) 이 연구에서는 연구경향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선정에 있어서 실증적 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문헌분석적 방법을 활용한 기존 선행연구도 이용하였다.

6) 이영균(1994)에서 분류기준으로 설정한 접근방법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사례연구, 역사적 접근방법, 내용분석, 비교연구, 제도적 접근방법, 기타(현상학, simulation 등)이다. 학위논문 접근방법은 설문조사 이용 논문이 133편(39.2%)으로 가장 많고, 사례연구가 62편(18.3%), 문헌연구가 55편(16.2%)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직론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구분	분류 기준	분류 내용
1	출판권호	010권~361권 ※ 앞 두자리(권), 뒤 한자리(호)
2	출판년도	1967~2002
3	논문게재시기 (5년 단위)	①1965~1969 ②1970~1974 ③1975~1979 ④1980~1984 ⑤1985~1989 ⑥1990~1994 ⑦1995~1999 ⑧2000~2002
4	연구자 수	①단독 ②2인공동 ③3인공동 ④4인공동⑤5인이상 공동
5	소속기관	①대학 ②국책연구소 ③민간연구소 ④정부기관 ⑤기타
6	직위	①전임교수 ②연구원 ③강사 ④공무원 ⑤기타
7	연구 목적	①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②이론의 적용 ③정책대안의 제시
8	연구 초점	①규범적·이론지향적 논문 ②문제해결적·치방적 논문
9	연구 방법	①문헌분석 ②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③심층면접조사 ④사례연구 ⑤기타분석 ※역사적 접근방법, 내용분석, 비교연구, 제도연구/기타, simulation, 현상학 적 방법 등은 기타분석으로 분류
10	연구비	①순수학문적 연구 ②연구비 지원 연구
11	연구 접근법	①서술적 접근 ②계량적 접근
12	계량적 접근 의 경우 자료 수집방법	①1차 자료 ②2차 자료 ③관련 없음 ※ 설문조사나 관찰을 직접한 경우는 1차 자료, 기존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는 2차 자료로 분류. 자료분석을 하지않는 정성분석은 관련 없음으로 분류 ※ 두 종류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구목적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류
13	계량적 접근 의 경우 통계 분석 기법	①기술통계(빈도수, 평균, 분산 등) ②카이제곱 검정(chi-square) ③기타 차이검증(Z검증, T검증, F검증, ANOVA) ④요인분석, 집락분석 ⑤인과분석(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LISREL 등) ⑥기타(시계열, DEA, AHP 등)
14	연구 관점	①미시적 조직이론 ②거시적 조직이론 ※ 미시적 조직이론은 행태론을 중심으로, 거시적 조직이론은 구조론을 중심 으로 함. 관리론은 거시적 조직이론으로 분류.
15	조직이론 연 구 영역	①개인차원의 연구 ②집단차원의 연구 ③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④조직환경 및 문화의 연구 ⑤기타 ※ 학습, 지각, 귀인, 성격, 태도, 동기부여는 개인차원, 공식·비공식, 리더십, 권력, 갈등관리, 의사전달, 의사결정 등은 집단차원, 조직구조, 조직구조설 계, 구조의 형태 등은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차원, 조직경제학, 신 제도론, 전략적 선택이론 등은 조직환경 및 문화의 연구 차원으로 분류
16	이론적 관점	①구조론적 접근방법 ②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③정치권력적 접근방법 ④기타 ※ 목표(목적), 조직의 효과성, MBO, 사무관리, 관료제, 구조의 형태, 조정, 공공관계, 기술, 조직과 환경, 조직설계, 조직변화 등은 구조적 접근, 인간 관, 동기부여, 소외, 성격/지각, 행태원리, 소집단,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 문화, 조직발전 등은 인간관계론적 접근, 의사결정, 정보관리/MIS, 선행계 획, 프로젝트계획/관리, 동적 계획, 규범적 의사결정모형, 체제분석, 기획 (계획), 갈등, 통제, 권력, 권위 등은 정치권력적 접근으로 분류

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통계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분석을 활용하였다. 권경득(1996)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방법, 즉 서술적 연구방법(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연구), 통계적 연구방법(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분석), 모의실험 및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들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연구시대, 연구영역, 연구비지원여부, 연구의 초점(이론지향적 또는 문제해결지향적) 등이 있다. 목진휴·박순애(2002)는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출판년도 및 호수, 논문의 유형, 저자 수, 저자명, 소속기관, 직급, 주제별 분류, 성격별 분류, 연구목적, 정책단계별 분류, 분석방법, 분석기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종류, 분석단위를 분류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이병렬·박기관(2002)은 지방자치학 연구경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연구영역, 시대,⁷⁾ 연구분야, 연구자 소속과 직급, 참여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여부 및 출처, 연구방법(서술적 접근, 계량적 접근), 연구초점(규범/이론적, 문제해결/처방적), 사용된 통계분석기법(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증, 그 밖의 차이검증, 요인분석, 인과분석, 기타)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한국 조직이론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주요 분류기준을 ① 논문게재시기(5년단위), ② 연구자 수, ③ 소속기관, ④ 직위, ⑤ 연구 목적, ⑥ 연구 초점, ⑦ 연구 방법, ⑧ 연구비지원 여부, ⑨ 연구 접근법, ⑩ 계량적 접근의 경우 자료수집 방법, ⑪ 계량적 접근의 경우 통계분석 기법, ⑫ 연구 관점, ⑬ 조직이론 연구영역, ⑭ 이론적 관점으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Ⅲ. 조직이론 연구경향 분석

1. 기술 통계량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조직이론 연구논문에 대한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표 3> 참조). 첫째, 한국행정학보에

7) 여기서는 연구시대를 지방자치 실시전에서 지방의회기(1989-94), 민선 1기(1995-1998. 4), 민선 2기(1998. 6-2001. 6)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게재된 조직이론 분야 연구논문의 80%이상이 1990년 이후에 실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3년(6편), 1994년(8편), 1995년(6편), 1997년(6편), 1998년(8편), 2001년(8편), 2002년(제36권 제1호에만 5편)이 각각 게재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에 들어서 조직이론 연구논문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직이론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량

분석 기준	연구 내용	논문편수(%)	분석 기준	연구 내용	논문편수(%)
논문 게재시기	1965-69	1(1.3)	논문 편당 저자 수	단독연구	59(76.6)
	1970-74	0(0)		2인공동연구	12(15.6)
	1975-79	8(10.4)		3인공동연구	6(7.8)
	1980-84	3(3.9)		4인이상	0(0)
	1985-89	3(3.9)		계	77(100)
	1990-94	21(27.3)	연구의 목적	이론 검증 또는 정립	36(46.8)
	1995-99	25(32.5)		이론의 적용	26(33.8)
	2000-02	16(20.8)		정책대안의 제시	14(18.2)
	계	77(100)		기타	1(1.3)
				계	77(100)
논문 게재시 저자 소속기관	대학	72(93.5)	연구의 초점	규범적/이론지향적	47(61.0)
	국책연구소	4(5.2)		문제해결적/처방적	30(39.0)
	민간연구소	1(1.3)		계	77(100)
	정부기관	0(0)	연구의 관점	미시적	35(45.5)
	기타	0(0)		거시적	41(53.2)
	계	77(100)		기타	1(1.3)
논문 게재시 저자의 직위	전임교수	59(76.6)		계	77(100)
	연구원	11(14.3)	연구의 수준	개인수준	22(28.6)
	강사	6(7.8)		집단수준	8(10.4)
	기타	1(1.3)		조직구조/형태	33(42.9)
	계	77(100)		조직환경/문화	11(14.3)
				기타	3(3.9)
연구비 지원여부	순수학문적	62(80.5)		계	77(100)
	연구비지원	15(19.5)			
	계	77(100)			

둘째, 논문게재 당시 저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93.5%인 72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에도 공동저자 역시 대학 연구원이나 강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논문게재시 저자의 직위 역시 대학의 전임교수가 59편(76.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연구원이 14.3%, 강사가 7.8%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연구논문의 경우 단독연구의 경우가 59편(76.6%), 2인공동연구가 12편(15.6%), 3인공동연구가 6편(7.8%)를 보이고 있으며, 4인이상공동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교차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1980년대까지는 적어도 조직이론 분야에 서 공동연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90-94년 사이에 4편, 1995-99년 사이에 8편, 2000-02년 사이에 6편이 실시됨으로써 공동연구의 77.8%가 1995년 이후에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조직이론 분야 논문의 경우에는 이론의 검증 및 정립을 위한 연구가 36편(46.8), 이론의 적용 연구가 26편(33.8%), 정책대안 제시 목적을 지닌 연구가 14편(18.2%)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실의 정책 적 대안 제시를 제외한 이론관련 논문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직연구는 이론지향적 특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규범적이면서 이론 지향적인 연구는 45편(5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처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30편(39.0%)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의 관점을 행태론을 포함하는 미시적 관점과 관리론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조직연구가 41편(53.2%)으로 미시적 관점의 연구 35편(45.5%)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차원을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조직환경과 문화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문이 33편(42.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개인수준이 22편(28.6%), 조직환경 및 문화가 11편(14.3%), 집단수준이 8편(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개인수준의 연구는 학습, 지각, 귀인, 성격, 태도, 동기부여 등의 내용, 집단수준에서는 공식·비공식 집단, 리더십, 권력, 갈등관리, 의사전달, 의사결정 등의 내용,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에서는 조직구조, 조직설계, 구조의 형태, 조직 환경 및 문화의 연구에서는 조직경제학, 신제도론, 전략적 선택이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시기와 연구목적에 관한 경향 분석

1) 연구시기별 연구초점 및 연구 목적에 관한 경향 분석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초점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기간 전반적으로 규범적·이론지향적 논문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규범적·이론지향적 경향에 더해 문제해결적·처방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연구의 초점들이 동등한 비율로 수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의 초점

단위: 편, %

구분	1965-69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2	계
규범적/ 이론지향적	1(100.0)	7(87.5)	2(66.7)	1(33.3)	10(47.6)	14(56.0)	10(62.5)	45(58.4)
문제해결/ 처방적	0(0)	1(12.5)	0(0)	1(33.3)	11(52.4)	11(44.0)	6(37.5)	30(39.0)
기타	0(0)	0(0)	1(33.3)	1(33.3)	0(0)	0(0)	0(0)	2(2.6)
계	1(100.0)	8(100.0)	3(100.0)	3(100.0)	21(100.0)	21(100.0)	16(100.0)	77(100.0)

$\chi^2=30.131$ $df=12$ $p<.05$ ($p=.003$)

연구시기의 변화에 따른 연구목적의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조직이론 분야 논문의 이론 검증 또는 정립이나 이론의 적용이 199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들어서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조직이론 분야에서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표 5> 참조).

이 같은 연구목적의 분포를 연구초점과 연결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즉 문제해결적이고 처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경우에도 단순히 현실정책 차원의 논문이 아니라 기존 이론의 검증이나 새로운 이론 정립의 시도 또는 기존 이론의 적용 통한 문제해결이나 처방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의 목적

단위: 편, %

구분	1965-69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2	계
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1(100.0)	5(62.5)	1(33.3)	0(0)	13(61.9)	7(28.0)	9(56.3)	36(46.8)
이론의 적용	0(0)	3(37.5)	2(66.7)	1(33.3)	4(19.0)	13(52.0)	3(18.8)	26(33.8)
정책대안의 제시	0(0)	0(0)	0(0)	1(33.3)	4(19.0)	5(20.0)	4(25.0)	14(18.2)
기타	0(0)	0(0)	0(0)	1(33.3)	0(0)	0(0)	0(0)	1(1.3)
계	1(100.0)	8(100.0)	3(100.0)	3(100.0)	21(100.0)	25(100.0)	16(100.0)	77(100.0)

 $\chi^2=39.670$ df=18 $p<.05$ ($p=.002$)

2) 연구분석수준별 연구목적

연구의 분석수준에 따른 연구목적의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각각의 수준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인수준의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목적이 이론의 검증이나 정립과 관련되어 있으며(54.5%), 이론의 적용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40.9%). 이로 미루어볼 때 개인수준의 연구의 경우에는 정책대안의 제시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수준의 경우에는 이론의 검증이나 정립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적용이나 정책대안의 제시와 관련된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 문제나 조직구조 설계 등과 관련하여 논문을 쓰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연구분석수준별 연구의 목적

단위: 편, %

구분	개인수준의 연구	집단수준의 연구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조직환경 및 문화	기타	계
이론의 검증 또는 정립	12(54.5)	7(87.5)	8(24.2)	6(54.5)	3(100.0)	36(46.8)
이론의 적용	9(40.9)	1(12.5)	12(36.4)	4(36.4)	0(0)	26(33.8)
정책대안의 제시	1(4.5)	0(0)	12(36.4)	1(9.1)	0(0)	14(18.2)
기타	0(0)	0(0)	1(3.0)	0(0)	0(0)	1(1.3)
계	22(100.0)	8(100.0)	33(100.0)	11(100.0)	3(100.0)	77(100.0)

 $\chi^2=23.254$ df=12 $p<.05$ ($p=.026$)

3. 연구접근법에 관한 경향 분석

1) 연구의 이론적 주제에 따른 연구접근법

연구의 이론적 기초와 연구의 주제에 따른 연구접근법의 분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본 연구에서 각각의 주제별로 포함하는 조직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 목표나 목적, 조직의 효과성, MBO, 사무관리, 관료제, 구조의 형태, 조정, 공공관계, 기술, 조직과 환경, 조직설계, 조직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조직의 인간관, 동기부여, 소외, 성격 및 지각, 행태원리, 소집단,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문화, 조직발전 등을 포함한다. 정치권력적 접근방법에서는 의사결정, 정보관리/MIS, 선행계획, 프로젝트계획/관리, 동적 계획, 규범적 의사결정모형, 체제분석, 기획, 갈등, 통제, 권력, 권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각각의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접근법으로는 먼저, 구조적 접근과 정치권력적 접근의 경우에는 서술적 접근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간관계론적 접근의 경우에는 계량적 접근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론적 접근의 경우에는 측정이나 분석, 설명을 위한 도구상의 문제로 인하여 연구의 편의상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계량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연구의 이론적 주제별 연구접근법

단위: 편, %

구분	구조적 접근방법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정치권력적 접근방법	기타	계
서술적 접근	27(71.1)	10(35.7)	7(100.0)	4(100.0)	48(62.3)
계량적 접근	11(28.9)	18(64.3)	0(0)	0(0)	29(37.7)
계	38(100.0)	28(100.0)	7(100.0)	4(100.0)	77(100.0)

$\chi^2=16.328$ df=3 $p<.05$ ($p=.001$)

연구의 이론적 주제와 관련하여 이용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접근의 경우에는 문헌분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연구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위주로 하여 문헌분석 위주로 연구되었으며, 정치권력적 접근방법은 문헌분석과 사례연구 중심의 연구가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론

단위: 편, %

구분	구조적 접근방법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정치권력적 접근방법	기타	계
문헌분석	18(47.4)	8(28.6)	3(42.9)	4(100.0)	33(42.9)
설문조사/통계자료분석	11(28.9)	18(64.3)	0(0)	0(0)	29(37.7)
심층면접조사	1(2.6)	0(0)	0(0)	0(0)	1(1.3)
사례연구	7(18.4)	1(3.6)	4(57.1)	0(0)	12(15.6)
기타	1(2.6)	1(3.6)	0(0)	0(0)	2(2.6)
계	38(100.0)	28(100.0)	7(100.0)	4(100.0)	77(100.0)

$$\chi^2=27.325 \text{ df}=12 \text{ p}<.05 \text{ (p=.007)}$$

2) 연구초점에 따른 연구접근법

연구초점에 따른 연구접근법의 경향은 규범적이면서 이론지향적인 논문의 경우에는 서술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논문이 73.3%를 점하고 있고, 계량적 접근은 26.7%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문제해결적이면서 처방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계량적 접근이 56.7%, 서술적인 접근이 43.3%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가 지향하는 초점에 따라 연구 접근법에 대한 선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연구초점별 연구접근법

단위: 편, %

구분	규범적/이론지향적 논문	문제해결적/처방적인 논문	기타	계
서술적 접근	33(73.3)	13(43.3)	2(100.0)	48(62.3)
계량적 접근	12(26.7)	17(56.7)	0(0)	29(37.7)
계	45(100.0)	30(100.0)	2(100.0)	77(100.0)

$$\chi^2=8.141 \text{ df}=2 \text{ p}<.05 \text{ (p=.017)}$$

3) 연구분석수준 및 연구관점별 연구접근법

연구분석 수준에 따른 연구접근법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수준의 연구의 경우에는 계량적 접근을 택한 논문이 72.7%, 서술적 접근이 27.3%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계량적 연구가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69.7%가 서술적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집단수준의 경우에도 75%가 서술적 접근을, 조직환경 및 문화에 관한 연구는 90.9%가 서술적 접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연구의 분석수준별 연구접근법

단위: 편, %

구분	개인수준의 연구	집단수준의 연구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조직환경 및 문화	기타	계
서술적 접근	6(27.3)	6(75.0)	23(69.7)	10(90.9)	3(100.0)	48(62.3)
계량적 접근	16(72.7)	2(25.0)	10(30.3)	1(9.1)	0(0)	29(37.7)
계	22(100.0)	8(100.0)	33(100.0)	11(100.0)	3(100.0)	77(100.0)

$$\chi^2=18.466 \text{ df}=4 \text{ p}<.05 \text{ (p=.001)}$$

연구의 분석수준에 더하여 연구관점별 연구접근법을 고려하면 하나의 뚜렷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개인수준의 연구를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계량적 접근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직관리 및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조직이론의 경우에는 서술적 접근이 우위의 접근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연구관점별 연구접근법

단위: 편, %

구분	미시적 조직이론	거시적 조직이론	기타	계
서술적 접근	15(42.9)	32(78.0)	1(100.0)	48(62.3)
계량적 접근	20(57.1)	9(22.0)	0(0)	29(37.7)
계	35(100.0)	41(100.0)	1(100.0)	77(100.0)

$$\chi^2=10.572 \text{ df}=2 \text{ p}<.05 \text{ (p=.005)}$$

연구분석수준에 따른 연구방법론의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수준 변수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분석이 77.3%로 가장 많았고, 집단수준 변수의 경우에는 문헌분석이,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의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위주로 하되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이 함께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연구의 분석수준별 연구방법론

단위: 편, %

구분	개인수준의 연구	집단수준의 연구	조직구조 및 형태와 조직개편	조직환경 및 문화	기타	계
문헌분석	2(9.1)	6(75.0)	14(42.4)	9(81.8)	2(66.7)	33(42.9)
설문조사/통계자료분석	17(77.3)	1(12.5)	10(30.3)	1(9.1)	0(0)	29(37.7)
심층면접조사	1(4.5)	0(0)	0(0)	0(0)	0(0)	1(1.3)
사례연구	1(4.5)	1(12.5)	8(24.2)	1(9.1)	1(33.3)	12(15.6)
기타	1(4.5)	0(0)	1(3.0)	0(0)	0(0)	2(2.6)
계	22(100.0)	8(100.0)	33(100.0)	11(100.0)	3(100.0)	77(100.0)

 $\chi^2=34.251$ df=16 $p<.05$ ($p=.005$)

5) 계량적 접근에 따른 통계분석기법 분포

계량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분석기법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통계분석기법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포함하는 인과분석 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등을 제시하는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⁸⁾

<표 13> 연구접근법에 따른 통계분석기법의 분포

단위: 편, %

기술통계 (빈도수, 평균, 분산 등)	카이제곱 검증 (Chi-Square)	기타 차이검증 (Z검증, T검증, F검증, ANOVA)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Q분석,집락분석)	인과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	기타 (시계열분 석, DEA, AHP 등)	계
4(13.8)	0(0)	4(13.8)	2(6.9)	17(58.6)	2(6.9)	29(100.0)

8) 지방자치학회보를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병렬·박기관(2002: 39)에서는 기술통계를 이용하는 단순통계분석기법이 4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과분석이 19.9%, 카이제곱 검증이 15.2%로 나타났다. 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목진휴·박순애(2002)에서는 기초통계를 이용한 논문이 40.5%로 가장 많았고, 회귀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포함하는 인과분석이 33.5%, 그리고 교차분석이나 t검증을 한 경우가 26%를 보이고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학분야의 연구 가운데서 조직이론과 관련된 논문들의 연구경향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96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조직이론 관련 논문 77편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조직이론 분야의 연구가 1967년 이후 계속해서 있어왔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척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까지 규범지향적이고 이론지향적 일변도의 연구경향이 1990년대 이후들어와서 조직이론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처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도 급증하여 현재는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이론 연구의 목적 역시 1980년대까지는 이론의 검증이나 적용에 국한되어 논의가 주로 있어왔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정책대안제시의 목적을 지닌 연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론의 검증이나 정립, 이론의 적용이 80%정도를 점유하고는 있으나 향후 조직이론 연구에서는 정책대안제시 목적을 지닌 연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연구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서술적 접근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술적 접근과 계량적 접근이 각각 62.3%, 37.7%의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이들 접근방법은 연구의 이론적 주제나 연구초점, 연구의 분석수준, 연구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인간관계론적 접근,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 개인수준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미시적 관점의 연구의 경우에는 계량적 접근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량적 접근의 경우에는 인과분석의 통계분석기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술통계와 차이검증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조직이론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직이론 연구의 경향과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직이론 연구방향을 가늠해 보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한계가 있음을 연구자는 파악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대상 논문이 한국행정학보에 국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조직이론 연구경향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를 포함한 다수의 논문집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첫 번째 한계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한계점으로서, 분석 대상 논문의 수량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연구대상 주제의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현재의 조직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변수들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분석대상 논문의 부족으로 인해 달성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 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김병섭. (1995). 한국행정조직 실증연구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29(4): 1413-1440.
- 김병섭·박광국·이종열. (1994).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출판부.
- 김운태. (1969). 한국행정학의 발전과정: 영역과 방법. 「한국행정학보」, 3: 31-66.
-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한국행정학보」, 26(4): 1049-1066.
- 김태일·서주현. (1998).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199-215.
- 김행범. (1995). 실증적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4): 1441-1462.
-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319-332.
- 박동서. (1992).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 「한국행정학보」, 26(4): 1429-1435.
- 박통희. (1996). 한국행정학의 「조직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적실성 제고를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89-201.
- 안병만. (1986). 행정학보 속에 나타난 한국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20(2): 359-373.
- 유민봉. (1996). 한국의 「인사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구조·내용의 진단과 대안

- 모색. 「한국행정학보」, 30(3): 187-197.
-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1.
- 이승중. (1996). 한국의 「지방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새로운 내용체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0(3): 199-210.
- 이양수. (1989). 조직이론분야 교과목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교과목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20: 135-158.
- _____. (1992). 조직행태론의 학문적 성격과 교과내용의 분석. 「사회과학논집」, 23: 143-189.
- 이영균. (1994). 행정학 연구의 변천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4): 1463-1479.
- 조석준. (1996). 「조직학개론」. 서울: 박영사.
- 주상현. (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하태권. (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한국행정학보」 분석대상 논문

- 권기성·최진석. (1997). 가상조직에 대한 정체성 고찰. 31(4).
- 권순만·김난도. (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29(1).
- 김광웅. (1977).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조직성과(생산성) 간의 인과관계 정립에 관한 모형연구. 11.
- _____. (1998). 김대중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32(2).
- 김광웅·정정길·방석현. (1992).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26(4).
- 김근세·권순정. (2001). 한국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맥락의 정합성 분석: 덤리비의 기관유형을 중심으로. 35(1).
- 김근세·오수길·정용일. (1998). 한국 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32(3).

- 김근세·최도림. (1996).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30(3).
- 김난도. (1997). 가상조직의 등장과 조직연구에의 그 이론적·실천적 함의. 31(1).
- 김병섭. (1993). 지식성장론의 가능성과 한계: 조직연구를 중심으로. 27(4).
- _____. (1996).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민간조직과의 비교. 30(3).
- 김상묵. (1994). 조직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28(2).
- _____. (1995). 조직내 정보 비대칭성과 그로브즈 메카니즘. 29(1).
- _____. (1998).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경험과 교훈. 32(3).
- 김순양. (2002). 지방정부조직 내부의사결정 과정의 신속성 제고방안: 결재제도를 중심으로. 36(1).
- 김정렬. (1996). 산업구조고도화와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특성 변화: 준내부조직의 균열과 정책네트워크의 다원화. 30(3).
- 김 혁. (2001).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서실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백악관 비서실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35(3).
- 김현구. (1993). 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27(1).
- 김호정. (1999). 신뢰와 조직몰입. 33(2).
- _____. (2001).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사조직의 비교. 35(2).
- 라제민. (1978). 관료조직과 전문직업주의. 12.
- _____. (1984). 조직환경에 관한 연구: 일반체계론의 관점에서. 18(1).
- 민 진. (1995).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29(3).
- 박경호·정윤수·최근희. (1998).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국가 GIS 정책의 사례. 32(2).
- 박광국·주효진·김옥일. (2001).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적 접근. 35(1).
- 박대식. (200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35(3).
- 박영기. (1987).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 21(1).

- 박우순. (1979). 행정조직내에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형정립의 시도. 13.
- _____. (1994). 조직경제학에 대한 전통적 조직이론의 비판적 논거. 28(4).
- 박중수. (1980). 조직의 성장단계와 개혁전략 관계분석. 14.
- 박통희·원숙연. (2000). 조직구성원간의 신뢰와 "연줄": 사회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34(2).
- 박홍식. (1991). 정부의 정책적 간여가 R&D 조직의 행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25(2).
- 배병룡. (1994). 집합행동과 중간조직의 제도변화: 1983년 한국가톨릭농민의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28(4).
- 배응환. (2002). 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 관계: 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보존논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36(1).
- 송운석·김재현. (2002). 중·하위직 공무원의 개인성격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직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6(1).
- 송위진. (1998). 조직의 딜레마와 대응행동: 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1993-1995) 사례분석. 32(1).
- 안해균. (1967). 한국행정조직과 소집단에 관한 몇가지 가설. 1.
- 오연천. (1993). 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 과제. 27(1).
- 오열근. (1991). 조직권력과 조직인의 소외에 관한 일 시론. 25(3).
- 옥원호·김석용. (2001).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35(4).
- 유민봉. (2001). 팀제 조직관리 도입의 실효성 분석과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35(4).
- 유평준·김도훈·유병욱. (1994).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조직상의 변화분석: 컴퓨터의 영향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28(4).
- 윤견수. (1992). 조직의 딜레마에 대한 상징적 반응: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26(4).
- 윤견수. (1997).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31(2).
- 윤성식. (1993). 경제대리인 이론과 조직의 효율성. 27(2).
- 윤재풍. (1975). 조직변화의 역동과 전략. 9.

- _____. (1976). 조직발전(OD)의 이론과 방법. 10.
- 윤정구·임준철. (1998). 공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사기업과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32(3).
- 이기식. (1997). 공공조직에서의 재 활용행태 영향요인분석: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31(2).
- 이명재. (1985). 행정조직의 건강성진단에 관한 연구: 조직발전(OD)의 진단과정을 중심으로. 19(1).
- 이상팔. (1995). 도시재난사고의 예방단계에서 정부조직학습-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29(4).
- 이선호. (1989). 한국국방조직의 당면문제와 발전방향. 23(2).
- 이시경. (1990). 도시행정에 있어서 민간과 사회부문 조직의 역할. 24(3).
- _____. (199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기구개편과 기능조정. 27(1).
- 이창신. (1984). 조직이론에 열역학의 개념과 원리의 적용. 18(2).
- 이창원·최창현·권해수. (199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계층 분석절차기법을 이용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32(1).
- 임도빈. (1993).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도지사 역할의 변화: 프랑스 도행정체제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 27(2).
- _____. (199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3).
- 정정길. (1993). 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바람직한 대통령의 정책관리: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27(1).
- 조경호. (1993). 한국공무원의 조직몰입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선형구조 모형의 적용. 27(4).
- _____. (1995). 조직변화에 대한 중간직 공무원의 인식과 경험. 29(3).
- _____. (1998). Hunter의 메타방법론을 적용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 분석. 32(2).
- 조경호·주재복. (2001). 조직유형별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공공성 접근을 중심으로. 35(3).
- 최성욱. (2001). 조직문화를 통해서 본 통합관료조직: 스키마 중심의 인지해석적 접근. 35(3).
- 최창현. (1991). 조직구조,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

- 에 대한 경로분석적 연구: 선형구조관계(LISREL) 모형의 적용. 25(2).
- _____. (1992). 환경에 대한 조직적응 양식: 구조적 상황이론, 자원종속이론, 개체군 생태학이론, 제도적 이론의 비교·분석. 26(2).
- _____. (1994). 조직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선형구조관계(LISREL) 모형의 적용. 28(2).
- _____. (1999). 복잡성이론의 조직관리적 적용가능성 탐색. 33(4).
- 최창현·유승동. (1994). Chaos 이론에 입각한 자기조직화 조직의 특성과 조직성과의 분석: 공·사조직의 비교·연구. 28(4).
- 최평길·박석희. (1994).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 관리 기능 비교연구. 28(4).
- 최홍석. (1994). 조직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의 유형과 그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주정부 기관과 사기업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28(2).
- 하재룡·김영대. (199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조직의 출현. 31(2).
- 한세억. (2002). 지능적 행정조직의 탐색과 실천: 재난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36(1).
- 허만용. (2001). 조직유형과 직위에 따른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의 관계: 메타분석적 연구. 35(3).
- 홍성만. (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36(1).
- Lee, Chong-Bum. (1975). Determinants of Organization Structure: Comparative Study of Organizations. 9.
- Merchant, J. J. (1979). Korean Interpersonal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n/America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9.
- Rho, Wha-Joon. (1975).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ocio-political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9.